

‘벽화와 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의 군사체계에 대한 토론문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발표자는 弓矢, 刀, 矛 중심의 고구려 무기체계가 45세기 대에는 矛 중심의 무기체계로 바뀌게 되며, 刀는 지휘용이나 포로참수용 등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병종구성은 보병과 기병으로 대별되며 보병의 주력무기는 斧와 矛, 刀이며 騎兵은 弓과 矛를 주력으로 하였으나 그중에도 矛가 가장 중요한 개인무기였다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중앙 군사조직으로는 궁정숙위를 담당하는 大模達 아래에 1천 명의 상비군을 거느린 末客과 1백 명의 상비군을 거느린 幢主가 있었으며, 지방관으로는 褥薩이 있고 그 하위에는 말객, 또는 郡頭 그리고 최하위 지방관인 婁肖와 白頭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고구려 군사조직을 아차산 일대 발굴조사 성과에 대응시키고 있다.

즉 6세기 전반 아차산 일대에는 약 2천여 명의 고구려 병사가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10여 명의 병사가 주둔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구의동 보루와 아차산·용마산 일대의 소규모 보루에는 각각 末客 또는 郡頭에 해당하는 지휘관이 있었으며, 100여 명의 병사가 주둔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차산4보루와 같은 대형급 보루에는 婁肖 또는 白頭에 해당하는 지휘관이 주둔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발표의 제목은 「벽화와 유물을 통해본 고구려의 군사체계」이지만 고구려 군사체계를 이해하기에는 각 유적에서 출토된 군사관련 유물의 수량이나 종류도 빈약할 뿐 아니라, 벽화 역시 45세기대에 집중되어 있어 유물과 벽화를 통한 고구려 군사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발표 내용도 새로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딱히 무엇에 대해 토론해야 할지 모르겠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료의 축적이 되어야만 가능한 고구려 군 전체의 운영상태보다는 발표자가 오랜 기간 동안 천착래온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유적을 중심으로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4-5세기대는 전 시기와 달리 矛 중심의 무기체계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는데 본문에서는 각 유적 출토 무기류에 대한 통계와 그 결과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4-5세기대에 이러한 무기체계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둘째, 아차산 보루의 병종구성과 관련한 질문이다. 여호규 선생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3-4세기 고구려 군의 병종구성은 步兵과 騎兵의 비율이 3:1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고구려의 남평양일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고, 주둔군의 숫자가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아차산 일대의 보루군에도 과연 기병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루의 여건상 말이 오르내릴 수 있었을지, 그리고 수락산보루와 아차산4보루 일부의 보루에서 발굴되는 마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바란다.

셋째, 아차산 보루의 운영방법과 관련한 질문이다. 발표자는 남한지역의 고구려 보루군이 교통로 확보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라기보다는 영역적 지배의 증거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역적 지배의 기본은 점령지역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차산 보루에서 발굴되는 유물 중에는 보습과 쇠스랑, 살포 등 農耕具가 상당수 있으며, 아차산3보루에서는 디딜방아의 흔적까지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은 보루 주둔군이 직접 屯田을 경작하고 보루에 디딜방아를 설치하여 직접 취사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보루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은 행정중심지나 남평양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위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보완설명을 바란다.

넷째, 마지막으로 고구려와 중국의 무기체계와 병종구성에 대한 포괄적 질문이다. 발표자는 발표문의 각주에서도 인용하고 있으며, 기왕의 다른 논문에서 신당서의 내용에 300인 이상을 團이라 하였고 단에는 校尉가 있었으며, 50인 이상을 隊라 하였고 대에는 正이 있었으며, 10인 이상을 火라 하였고, 화에는 長이 있었다고 하여, 구의동보루에는 火에 해당하는 부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논지의 근거에는 고구려와 중국의 군사조직이 유사할 것이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4-5세기대 위진남북조의 병기를 보면, 근접무기기로는 戟, 矛와 稍, 刀, 劍이 있었으며, 원거리 무기로는 弓矢, 弩가 있었고 방호장구로는 방패와 투구, 갑옷, 具裝(馬甲)가 있어서

고구려와 유사한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중국(위진남북조)와 고구려의 무기체계와 형태, 병종구성, 그리고 인력동원방식이 거의 같았던 것인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